

## 계양구, 2026년 저소득층·장애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의 5~18세 유·청소년(2008~2021년 출생자)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5~69세 등록 장애인(1957~2021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1인당 월 10만 5천 원 범위 내, 장애인은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가맹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이용권 사용은 온라인 결제로만 이루어지며 현장 카드 단말기 결제는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이용권 누리집(스포츠강좌이용권 svoucher.kspo.or.k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dvoucher.ksp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수급자격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12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작지대 없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라며, 많은 분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 중구 관광 사업 종사자 교육

중구(구청장 김정환)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버파크호텔에서 총 4회에 걸쳐 '관광사업 종사자·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의 일환인 이번 교육에는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 관련 실무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중구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소규모 맞춤형 집합교육 방식을 채택해 ▲관광객 심리·행동 특성 이해(10월 27일) ▲로컬 관광 활성화(10월 29일) ▲대박 난 관광지의 특징(11월 3일)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정신(11월 5일) 총 4가지 주제를 상세하게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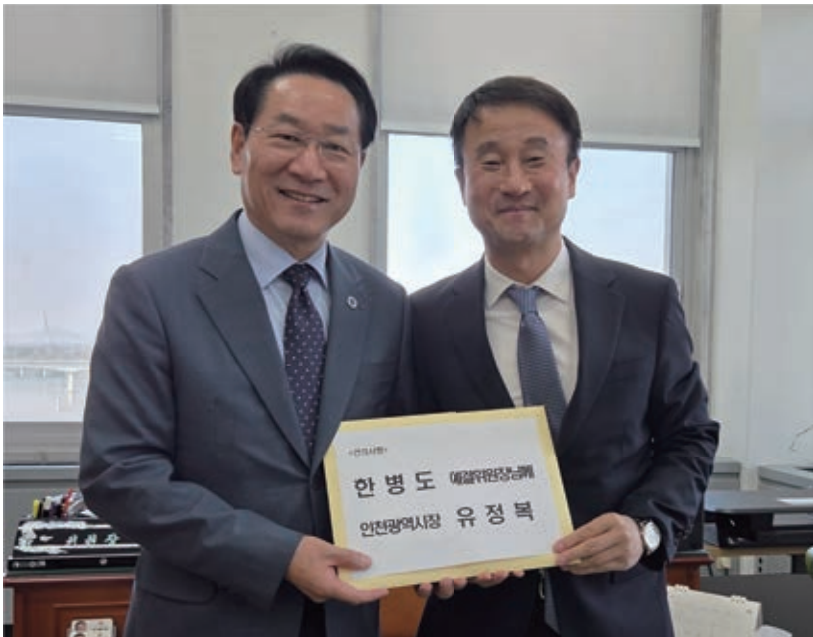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인하공전 김재호 교수,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CS 교육연구소 정하린 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이론과 사례 중심의 강의를 펼치며, 관광객 응대 역량, 서비스 품질, 지역자원 활용 등 관련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데 주력했다.

## 유정복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총력 대응

예결위원장·양당 간사 면담 등 협조 요청

7개 핵심 사업 749억 원 건의...정부안 대비 726억 원 증액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시는 5일 유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 및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 원) ▲인천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 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 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 원)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평가 지원(37억 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15억 원) 등 총 7건이다.

이들 사업의 총 건의 규모는 749억 원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726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인천시는 감염병 대응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또한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 성장했다"며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환경·복지·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 공직자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검단구 주민소통 DAY’ 성공리에 마무리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4일 새롭게 탄생하는 검단구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임시청사 안전 준공을 기원하는 '검단구 주민소통 DAY'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요기조기 음악회의 흥겨운 오프닝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는 강범석 서구청장, 송승환 서구의장, 모경중 국회의원, 하병필 행정부시장 등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검단구의 힘찬 비상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며, 함께 성취해나갈 미래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심하린 기자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터치버튼 세리머니에 내빈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도 무대에 올라와 임시청사의 착공을 축하하였으며, 검단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영상 편지도 상영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검단구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검단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며 "차질 없는 검단구 출범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강화군, 선두권역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김상면 선두권역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선두4리항(선두4리)은 인근 선두항(선두5리)과 함께 하나의 '선두권역' 생활권으로 새 단장을 추진하며, 어항 기능 회복은 물론 관광·체험과 연계한 활력 있는 어촌으로 재도약할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어민 소득 창출 ▲생활 SOC 확충 ▲관광 자원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어판장 노후시설 정비 및 증축 ▲수산물 덕장 및 가공시설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어구어

망 창고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지역 특화 홍보마케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강화군이 주민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선두항 인근 배후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이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은 군민과 한마음으로 준비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며, 치밀되었던 선두권역 일대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항시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어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읽건쓰 문화 확산 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과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읽건쓰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읽건쓰 교육 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

육·연구 분야 교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교육청은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읽건쓰·책크인·민주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교원

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읽건쓰 전국 단위 교원 연수비용 할인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도성훈 교육감은 '읽건쓰와 함께하는 인천 평화교육'주제 강연에서 인간과 자연,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에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갖춘 애기애대 정신의 중요성과 인천교육청의 평화·민주시민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의 읽건쓰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삶과 학습을 연결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인천과 울산이 함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과 연대로 읽건쓰 교육 철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웅진군·가천대길병원 소아작도 무료진료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5일,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천대길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작도를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올해 소아작도 두 번째 방문이자, 웅진군 관내 여섯 번째 도서지역 진료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방과 진료를 중심으로 만성

질환 상담, 통증 완화를 위한 뜸 치료, 건강상태 체크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소아작도는 상시 의료기관이 없어 평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기초적인 진료만 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진료를 진행한 이번 방문은 섬 주민들에게 의미와 만족을 준 시간이 되었다.

웅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진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료를 통해 주민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김선준, 진혜진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